7 대 오가와 지헤에

7 대 오가와 지헤에(1860-1933)는 메이지 시대(1868-1912)의 가장 유명한 정원 작가 중 한 명입니다. 물과 돌을 사용하여 만든 정원이 유명하며 현대 일본 정원 제작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. 이곳 헤이안 신궁에 있는 4 개의 정원 중 세 곳이 그의 손길에서 탄생한 정원입니다. 1895년 창건 시에는 니시 신엔(서쪽 정원), 나카 신엔(중앙 정원)을, 1916년에는 히가시 신엔(동쪽 정원)을 조성했습니다.

신엔은 1890년에 건설된 비와호 수로에서 끌어들이는 물로 조성한 커다란 연못이 있는 밝고 탁 트인 공간입니다. 비와호 수로 건설은 당시 일본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며,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물을 끌어와 여러 연못을 만든 정원은 당시에도 매우 보기 드물었습니다.

니시 신엔과 나카 신엔을 연결하는 정원의 시냇물은 1897년 7 대 오가와 지헤에가 조성했습니다. 시냇물에 놓여 있는 돌은 물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되었습니다. 시냇물 옆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물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. 이 같은 배치는 여유롭게 정원 분위기를 감상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설계되었습니다.

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누군가의 손길을 거친 듯한 자연과는 사뭇 이질적인 돌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. 7 대 오가와 지헤에가 선보이는 작품의 진면모가 바로 다리나 건조물에 사용되었던 돌을 재사용하는 것이었는데, 이러한 모양의 돌은 작가가 설계한 여러 정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